

한중Zine

# INChinaBrief

Vol.298 2015.09.07

「중국도시정보 13」\*

## 중국 화북지역 거점도시 발전 현황 분석

작 성 |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 (xiuhan@idi.re.kr)

유다형 (yoodh@idi.re.kr)

### 목 차

1. 화북 거점도시 개요
2. 화북 거점도시 발전현황 분석
3. 종합 및 교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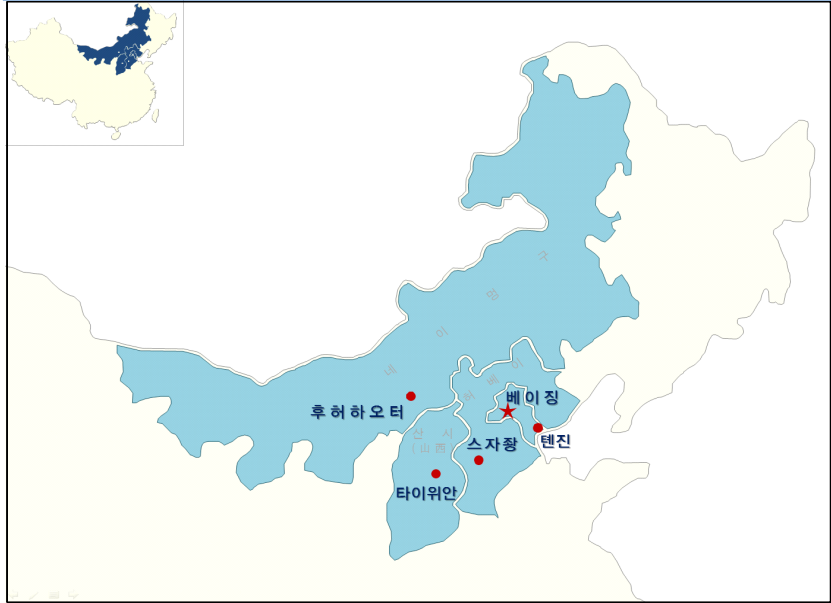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전략에 주목, 각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 및 도시권의 발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도시정보> 시리즈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권역별 성장 거점 대도시와 도시간 광역네트워크 전략의 등장은 우리에게 지역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대 중국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INChina Brief 〈중국도시정보〉 시리즈에서는 중국 화북/동북/화동/화중/서부 지역 주요 거점도시의 경제역량 및 산업구조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권역 거점도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교류·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중국 지역거점도시에 관한 경제지표는 주로 김수한·유다형(2015a)에 기초하고 있음

## 1. 화북 거점도시 개요

- 중국의 6대 중국지리대권역의(中國地理大區) 가운데 하나인 화북(華北)지역은 행정구역상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 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를 포함
- 화북지역 거점도시로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좡(石家莊)과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太原) 그리고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를 들 수 있음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면적과 인구는 다음과 같음
  - 베이징시 면적 16,800km<sup>2</sup>, 인구 2,114.8만 명
  - 톈진시 면적 11,305km<sup>2</sup> 인구 1,472.2만 명
  - 스자좡시 면적 15,8408km<sup>2</sup>, 인구 1,049.98만 명
  - 타이위안시 면적 6,999km<sup>2</sup>, 인구 429.89만 명
  - 후허하오터시 면적 17,224km<sup>2</sup>, 인구 300.1만 명임

그림 11 화북지역 거점도시 위치



- 화북지역 거점도시와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으로는 <징진지프로젝트><sup>1)</sup>와 <텐진경제자유무역지대>선정을 들 수 있음
- <징진지프로젝트>는 베이징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인접한 텐진과 허베이로 분산, 역내 산업 재배치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수도권의 다양한 교통 및 환경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임
- <징진지프로젝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도 베이징의 ‘비핵심적인’ 역할을 나머지 지역에 이전할 계획임
  - 베이징은 정치·문화·국제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됨
  - 중국 당국은 베이징이 제조업이나 물류, 도매시장 등 수도로서의 핵심 역할 외적인 요인에 의해 과도한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1)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의 약칭임. 징진지프로젝트와 관련된 베이징, 텐진, 허베이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은 <국민일보> 2015.8.25 참고

고 판단하고 있음

- 텐진과 허베이성으로 역할을 이전하면서 중기목표로 지난해 말 현재 2,150만 명인 베이징의 인구를 2,300만 명 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임. 베이징시는 기능 분산으로 베이징의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공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텐진은 첨단제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지이자 중국 북부의 해운 허브, 금융혁신과 개혁·개방의 시범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허베이성은 교역과 물류의 중심 기지이자 산업구조 전환 및 도시화의 시범구, 생태 완충지역 등으로 개발 됨
- 텐진시는 2014년 12월 상하이경제자유무역지대에 이어 광둥(广东), 푸젠(福建)과 함께 국가급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됨<sup>2)</sup>
    - 뛰어난 제조업 생산 인프라와 해운·항만 등 발달된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외 교역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텐진시는 이번 자유무역지대 지정으로 동북아를 겨냥한 해운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됨
    - 자유무역시험구가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개혁 방면에서 거둔 성과는 징진지 지역 자원요소의 이동, 산업융합과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촉진작용 기대
  - 한편 텐진시는 인천광역시와의 자매우호도시 (1993년)로서 2013년 인천-텐진 결연 20주년 행사를 진행한바 있음
    - 두 도시는 양국 최초의 개항장이자 수도권 관문도시라는 유사한 위상, 인천경제자유구역-텐진경제자유무역지대 등 미래선도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 2016년 인천-텐진은 한중인문유대 테마도시로 선정되었음

---

2) 텐진발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한·유다형 (2015b)참고

## 2. 화북 거점도시 발전현황 분석

### 1) 거점도시 지역경제 현황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지역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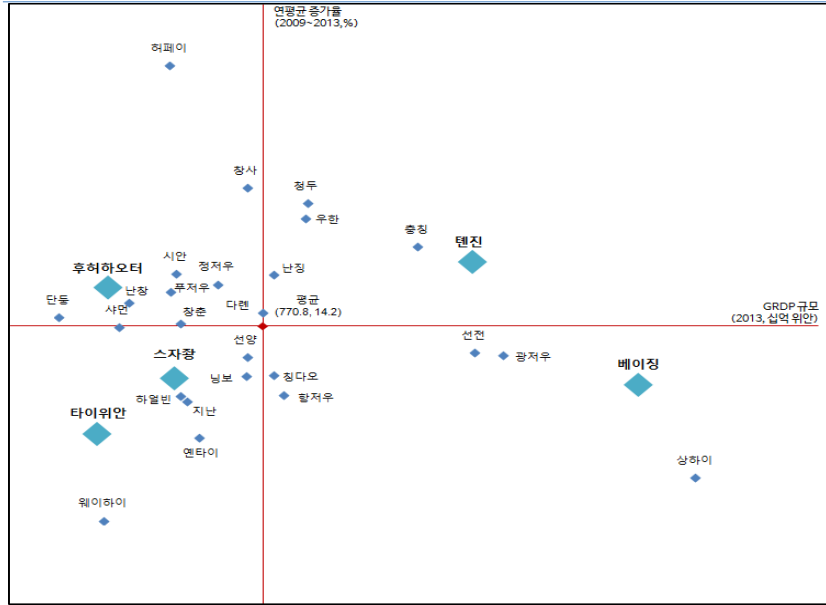
표 1 | 화북지역 거점도시 지역경제 규모 및 성장 (2013년)

거점도시	GRDP		1인당 GRDP		고정자산투자	
	규모 (십억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규모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규모 (백만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베이징	1,980.1	12.3	94,648	8.0	703,220	13.0
톈진	1,437.0	16.5	100,105	11.4	1,012,121	24.9
스자좡	486.4	12.4	48,491	11.0	440,021	21.1
타이위안	241.3	10.6	56,547	6.1	167,074	19.1
후허하오터	270.5	15.6	90,941	13.0	149,983	17.8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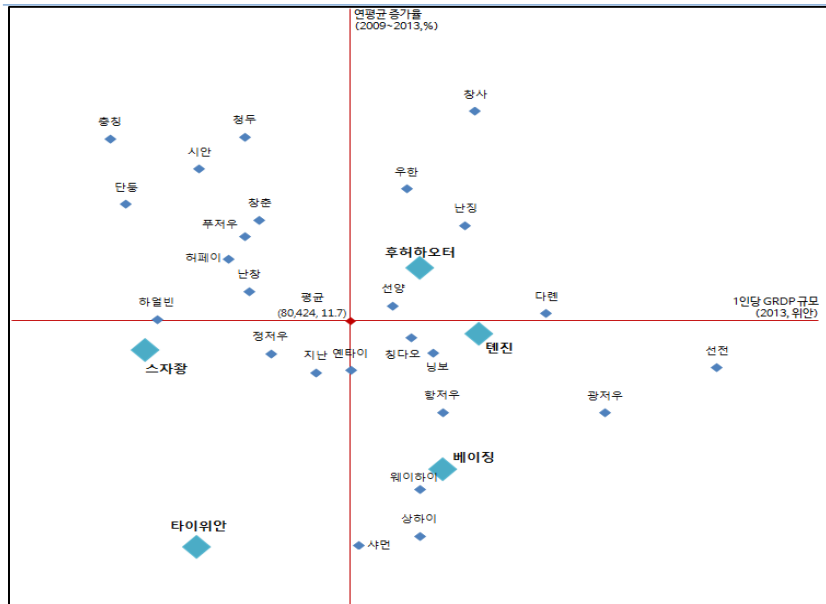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과 중국 전역 주요 거점도시들 간의 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아래 그림들과 같이 사분위표에 표시하여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음
  - 베이징시는 GRDP 규모 및 1인당 GRDP 측면에서 보면 특대형 성숙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 톈진시의 경우 큰 경제규모와 더불어 연평균 1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등 특대형 성장도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후허하오터시는 15.6%의 GR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 및 인구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경제역량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고정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톈진시는 2013년 기준 충청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 또한 24.9%에 달하고 있음

그림 2 | 화북지역 거점도시 GRDP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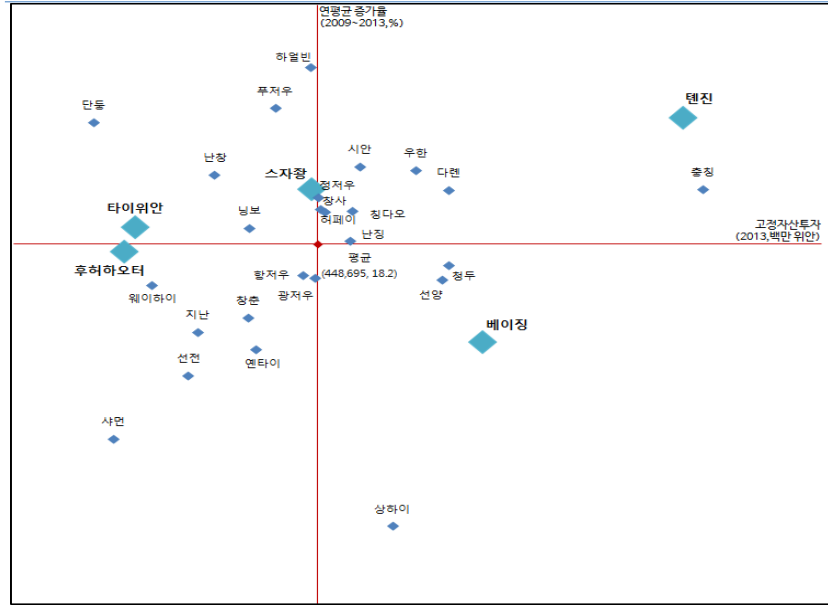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그림 3 | 화북지역 거점도시 1인당 GRDP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그림 4 | 화북지역 거점도시 고정자산투자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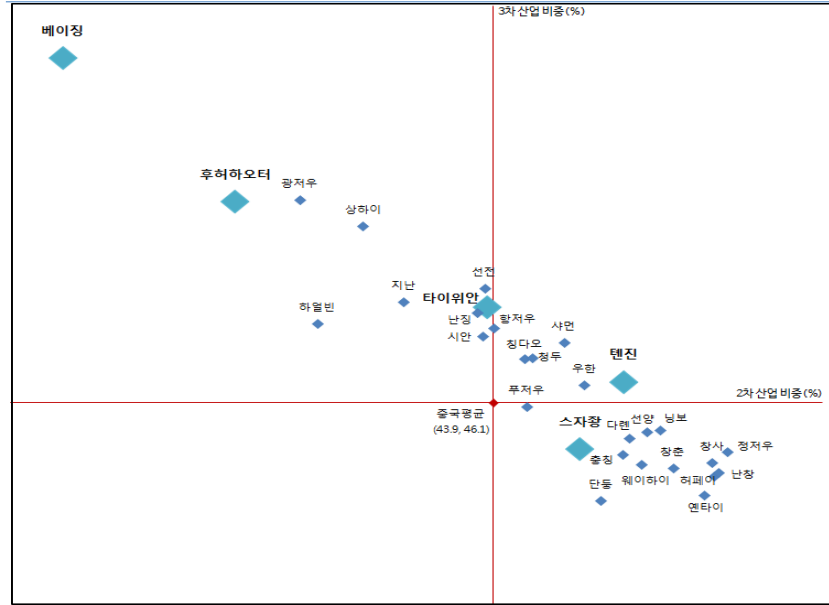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 2) 거점도시 산업구조 및 특성

- 화북지역 거점도시의 산업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 거점도시들과의 2·3차 산업 비중 비교를 진행하여 <그림 5>와 같이 사분위표에 표시함
- 또한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산업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수 수치를 활용하여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지수를 <표 2>와 같이 산출함

$$LQ_i = \frac{j\text{도시의 } i\text{산업의 고용인구} / j\text{도시의 총고용인구}}{\text{전국 } i\text{산업의 고용인구} / \text{전국 총고용인구}}$$

그림 5 | 화북지역 거점도시 2·3차 산업비중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표 2 | 화북지역 거점도시 LQ 지수(2013년)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2차 산업	채광업	0.27	0.74	0.17	<b>3.12</b>	0.04
	제조업	0.47	<b>1.37</b>	0.82	0.73	0.37
	전력, 가스, 용수	0.64	0.81	<b>1.40</b>	<b>1.39</b>	<b>2.89</b>
	건축업	0.37	0.64	0.57	<b>1.17</b>	0.66
3차 산업	교통운송,우정	<b>1.87</b>	1.11	<b>1.65</b>	0.73	<b>1.83</b>
	도소매업	<b>1.67</b>	1.03	1.08	0.82	1.15
	숙박·요식업	<b>1.83</b>	0.95	0.71	1.05	<b>1.35</b>
	부동산업	<b>2.56</b>	<b>1.42</b>	0.67	0.54	1.07
	임대·비즈니스	<b>3.68</b>	0.79	1.17	1.12	1.08
	정보전달,SW	<b>3.70</b>	0.56	1.01	1.08	<b>1.85</b>
	금융업	<b>1.84</b>	0.93	<b>1.65</b>	1.04	<b>1.81</b>
	과학연구·기술	<b>3.84</b>	<b>1.70</b>	<b>1.65</b>	<b>1.84</b>	<b>2.34</b>
	교육	0.71	0.72	<b>1.54</b>	0.94	<b>1.37</b>

자료: 「中国城市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 3차 산업 비중이 77.5%에 이르는 베이징시는 서비스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
  - 특히 베이징시는 정보전달·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의 LQ지수가 3.70, 과학R&D지수가 3.84를 기록하는 등 매우 특화된 기술정보서비스업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텐진시의 2차 산업 비중은 50.%로 화북지역 거점도시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제조업 LQ지수 역시 1.37에 달함
  - 텐진시는 화북지역 최대의 제조업 도시로서 첨단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빈하이신구의 에어버스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항공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항공기 임대 허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텐진은 상하이에 이어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됨으로서 항운과 해운을 활용한 교통·물류 및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sup>3)</sup>
- 2차 산업 비중이 48.3%에 달하는 스자좡은 제조업 LQ지수가 0.81이지만 향후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힘입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으로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sup>4)</sup>
- 화북 최대의 석탄산지인 타이위안시의 채광업 LQ지수는 3.12에 달하며 전력·가스·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관련 지수가 1.39로 관련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
- 3차 산업 비중이 64.5%에 이르는 후허하오터의 제조업 LQ지수는 0.37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과학R&D LQ지수가 2.34, 정보전달·소

3) 텐진시는 북부지역 항공 화물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빈하이국제공항 제2기 공사 및 항공물류단지 건설을 추진 중임.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청 외 (2015:106) 참고.

4) <징진지프로젝트>에 따라 허베이성에는 첨단 제조 기지와 물류센터, 전략 자원(석유 등) 비축 기지 등이 들어서게 됨.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최근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 첨단 설비를 갖춘 제4공장을 착공한 것도 징진지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음. 베이징에 있던 대규모 도매시장과 동물원도 모두 허베이성으로 이전할 계획임. 관련 내용은 <조선비즈> 2015.8.16. 참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의 LQ지수가 1.85, 금융업 서비스 지수 1.81 등 상대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이 특화되어 있음

### 3) 거점도시 소비경제 현황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소비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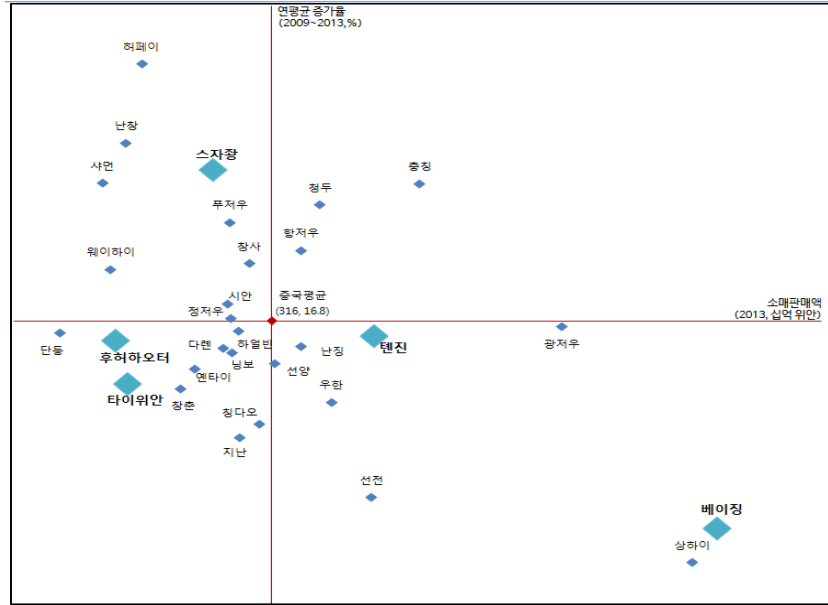
표 3 | 화북지역 거점도시 소비경제 규모 및 성장 (2013년)

거점도시	소비품판매		1인당 가처분소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십억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규모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규모 (위안)	5년 평균 증가율 (%)
베이징	887.2	13.8	40,321	10.3	26,275	9.8
톈진	447.0	16.6	32,658	11.0	21,850	10.2
스자좡	238.7	18.9	23,994	9.8	15,198	9.0
타이위안	129.5	15.9	24,000	9.6	14,338	5.9
후허하오터	114.2	16.5	32,003	9.7	17,973	7.1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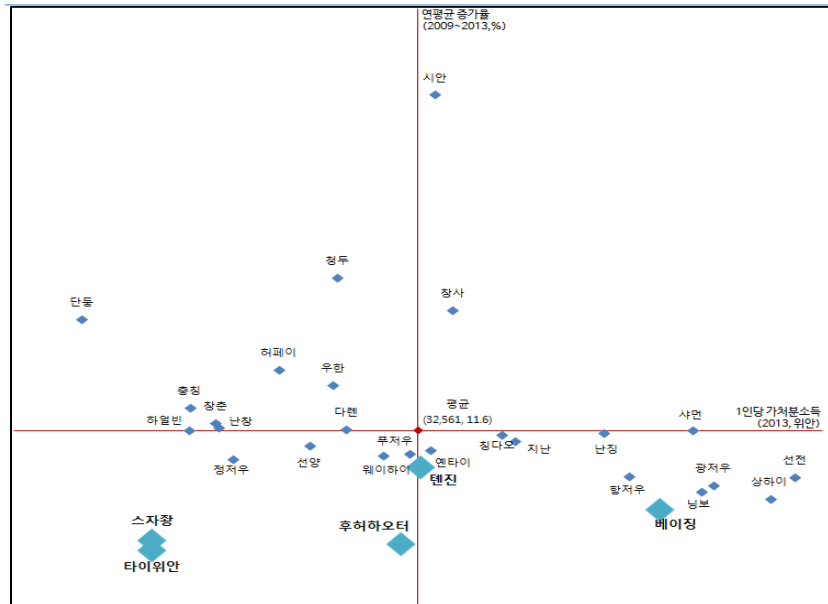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과 중국 전역 주요 거점도시들 간의 소비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아래 그림들과 같이 사분위표에 표시하여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음
  - 소비판매액 규모 및 1인당 가처분 소득 그리고 1인당 소비지출 등 거점도시의 소비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측면에서 베이징의 역량이 두드러짐
  - 2013년 소비판매액 기준 베이징시는 톈진의 약 2배, 스자좡의 3.7배에 달함
  - 톈진시의 경우 거점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의 소비경제 규모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자좡의 경우 약 18.9%에 달하는 소비판매액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6 | 화북지역 거점도시 소매판매액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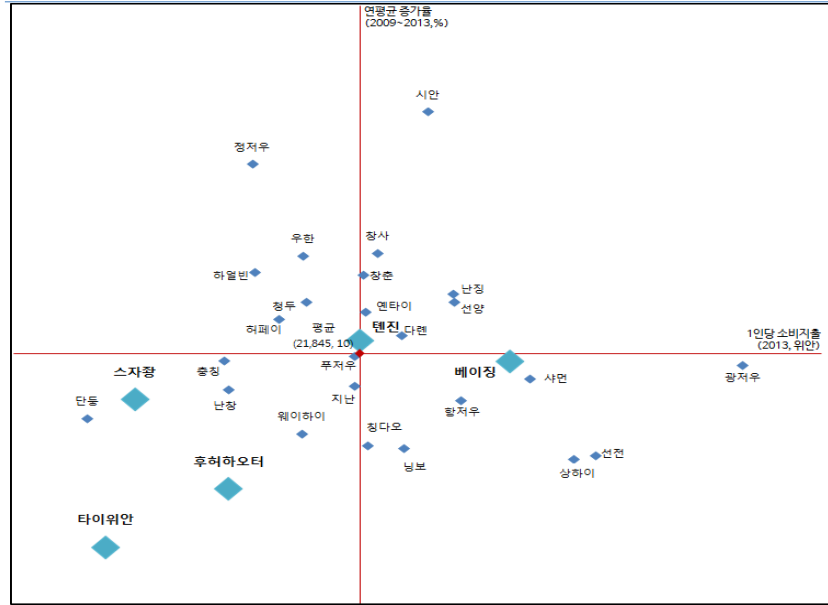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그림 7 | 화북지역 거점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그림 8 | 화북지역 거점도시 1인당 소비지출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 4) 거점도시 대외경제 현황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대외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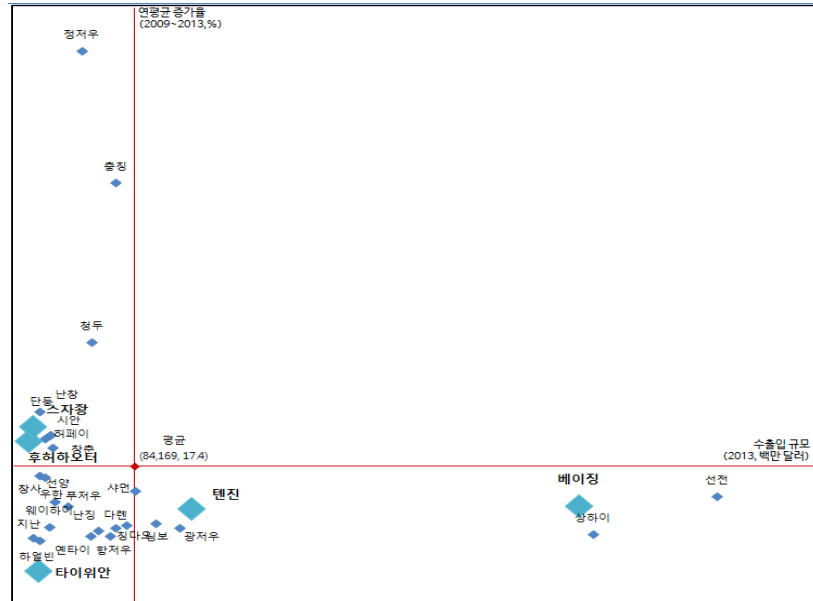
표 4 | 화북지역 거점도시 대외경제 규모 및 성장 (2013년)

거점도시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백만 달러)	5년 평균 증가율(%)	규모 (백만 달러)	5년 평균 증가율(%)
베이징	429,942.0	11.8	8,524.2	7.1
텐진	128,528.0	11.3	16,829.0	17.9
스자좡	14,000.0	21.3	980.5	33.1
타이위안	9,163.5	2.4	944.3	33.5
후허하오터	1,599.0	20.9	806.9	4.8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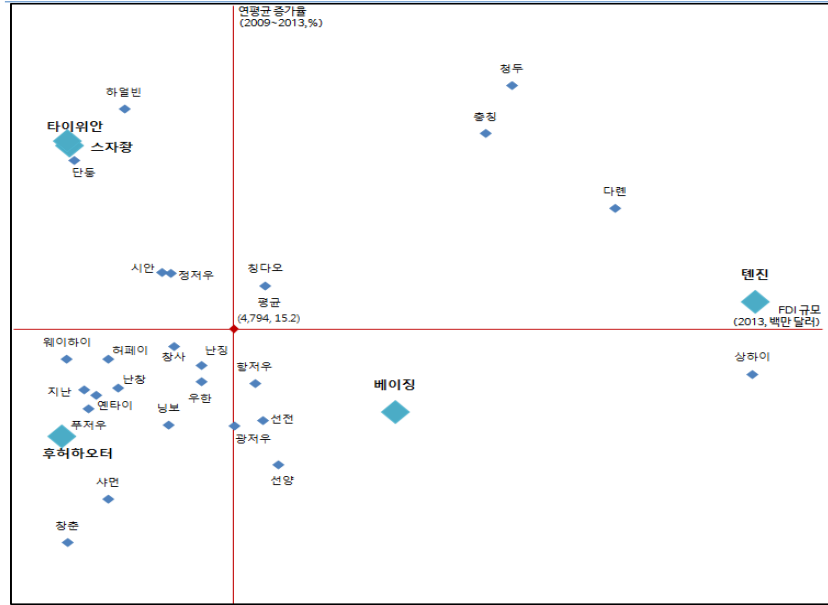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과 중국 전역 주요 거점도시들 간의 대외경제 규모 및 성장률을 아래 그림들과 같이 사분위표에 표시하여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음
  - 베이징의 2013년 수출입규모는 429,940백만 달러로 선전, 상하이에 이어 전국 3번째에 이르며 그 평균 성장률도 11.8%에 이름
  - 톈진의 수출입 규모는 128,528백만 달러로 전국 거점도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반면 다른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수출입 규모는 전국 평균 이하인 가운데 스자좡의 증가율이 21.5%에 이름
  -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톈진은 2013년 전국 최고인 16,829백만 달러에 이르며 그 증가율도 17.9%에 달함
  - 스자좡과 타이위안의 외국인직접투자 5년 평균 증가율이 각각 33.1%와 33.5%에 이르는 등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9 | 화북지역 거점도시 수출입 규모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그림 10 | 화북지역 거점도시 FDI 규모 및 연평균증가율 비교



자료: 「中国统计年鉴(2014)」 활용하여 작성

### 3. 종합 및 교류 방향

- 화북지역 거점도시들의 지역·소비·대외경제 각 항목 지표의 규모와 성장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4분위 그래프 분포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순 분류함
  - 1사분면에 분포해 있을 경우 관련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도 빠른 성장형 특대도시로 간주하고 AA로 표기
  - 4사분면에 분포해 있을 경우 규모가 크고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도시로 간주하고 A로 표기
  - 2사분면에 분포해 있을 경우 관련 경제 규모는 평균보다 작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성장도시로 간주하고 B로 표기

- 3사분면에 분포해 있을 경우 관련 경제 규모 및 성장률 모두 거점 도시 평균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고 C로 표기

표 5 | 화북지역 거점도시 경제 역량 및 성장 분석 종합

거점도시	지역경제			소비경제			대외경제	
	GRDP	1인당 GRDP	고정 자산 투자	소비용 판매	1인당 가처분 소득	1인당 소비 지출	수출입	외국인 직접 투자
베이징	A	A	A	A	A	A	A	A
톈진	AA	A	AA	A	A	AA	A	AA
스자좡	C	C	B	B	C	C	B	B
타이위안	C	C	B	C	C	C	C	B
후허하오터	B	AA	C	C	C	C	B	C

- 모든 항목이 A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성숙형 특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베이징시는 정보기반서비스업이 고도로 특화되어 있으며, 이 같은 특징은 향후 정진지 전략에 힘입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AA와 A를 나타내고 있는 톈진은 성장형 특대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톈진시는 중국 최고 수준의 고정자산투자·FDI 규모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상하이에 이어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톈진시의 대외경제 역량,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빠르게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톈진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 역량을 갖고 있는 화북 거점도시들 가운데 스자좡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경제 및 고정자산·FDI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향후 <정진기프로젝트>에 따른 베이징, 톈진과의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 산업이전 등의 정책 집행에 따라 빠른 지역경제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짐

- 화북지역 거점도시와의 교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인천과 자매결연관계인 텐진직할시를 화북지역 교류·협력 중심도시로 삼아, 수도 베이징과의 협력관계를 개척하고 스자좡의 발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텐진시와는 2016년 한중인문유대 테마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협력을 강화
  - 2014년에 이어 2015년 인천에서 개최하는 <텐진국유기업경영인연수프로그램>을 정기화하고 인천-텐진 비즈니스 교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킴
  - 베이징시 인민우호교류협회를 통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 중국 최대 해외관광객 송출지역임을 고려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仁商>프로그램 연계, 베이징 중관춘관리위원회와 협력관계 구축
  - 허베이성 현대자동차 창저우공장 신설에 따른 인천 자동차 부품산업 진출 지원

#### 참고자료

김수한·유다형 (2015a), “인천 대 중국교류 체계화를 위한 중국 거점도시 선정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근간)

----- (2015b), “환발해 권역성장거점, 중국텐진시 발전현황 분석”, 『INChinaBrief』. Vol.291.

----- (2015c), “중국 신창타이 시기 지역발전의 재구성”, 『INChinaBrief』. Vol.288.

양평섭 외(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청 외 (2015),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안내서』

「中国统计年鉴 2014」

「中国城市统计年鉴 2014」

<조선비즈> 2015.8.16.

<국민일보> 2015.8.25.